



## 진화심리학과 개인화

### 사회적 맥락의 비교검토

Evolutionary Psychology and Individualism : A Comparative Social Contextual Reappraisal

---

저자 (Authors)	오현미, 장경섭 Oh Hyeon-Mi, Chang Kyung-Sup
출처 (Source)	<a href="#">사회와이론</a> , 2014.05, 43-94(52 pages) <a href="#">Society and Theory</a> , 2014.05, 43-94(52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이론사회학회</a> Korean Society for Social The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2827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28275</a>
APA Style	오현미, 장경섭 (2014). 진화심리학과 개인화. 사회와이론, 43-94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진화심리학과 개인화: 사회적 맥락의 비교검토\*

오현미 · 장경섭\*\*

## [국문 초록]

1970년대 등장한 사회생물학은 페미니즘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적 유행이 되고 있는 진화심리학에 대해 페미니즘은 침묵으로 반응해왔다. 사회생물학은 핵가족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며 핵가족의 결속이 영구적인 이유를 인간 여성의 성적 수용성에서 찾았다. 즉 사회생물학은 20세기 중반 남성 생계 부양자 가족 형태를 자연화하고 그 보편성과 영속성의 근거를 생물학을 통해 뒷받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진화심리학은 핵가족을 상대화하여 남녀 결합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 그 위치를 재조정하였다. 여기서 여성은 주체화된 개체로서 다양한 남녀 관계를 선택하는 전략적 행위자가 된다. 또한 진화심리학은 남녀 관계에서 조화뿐 아니라 갈등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남녀의 진화된 성 심리와 전략의 차이를 통해 설명한다. 이제 진화심리학은 핵가족을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남녀 관계의 다양성과 갈등의 진화적 원인을 설명하는 데로 초점을 이동하였다.

---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과제번호 KRF-2009-32A-A00029). 이 연구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의식의 발전을 도와주신 김세균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심사 과정에서 세심하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 오현미[공동(제1)] · 장경섭[공동(참여)].

진화론적 사회과학의 이러한 변모는 한편으로 페미니즘과 같은 과거 비판 진영의 입장을 누그러뜨렸고, 다른 한편으로 관련 주제의 새로운 사회이론들과의 친화력을 강화시켰다. 예컨대 진화심리학의 관점은 사실상 동시대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의 개인화 논의와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갖는다. 진화심리학은 분석의 초점을 가족 단위에서 남녀 개인으로 옮겼고, 또한 개인의 전략적 선택과 그 선택이 낳는 남녀 관계 갈등에 분석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런 점은 벡이 말하는 남녀의 가족적 존재에서 개인적 주체로의 변화, 개인 중심의 선택이 불가피해지는 상황, 선택이 야기하는 남녀 갈등에 대한 논의와 친화력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 개인화 현상이 서구 이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차별적인 상황을 함께 감안하면, 진화심리학과 벡의 개인화론의 이론적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후기 근대라는 특정한 역사·사회적 맥락에 기초한 것이며, 진화심리학적 논의가 비서구적 상황에 적용될 때 개인-가족-사회 관계에 대해 내용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발전을 거쳐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주요 단어: 진화심리학, 사회생물학, 페미니즘, 개인화, 젠더, 핵가족, 서구, 동아시아

## 1. 들어가며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월경(越境)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월경 현상은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연구,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 초학제간(transdisciplinary) 연구, 통섭(consilience), 통합(integration), 컨버전스(convergence), 융합 등의 다양한 명칭과 양상으로 나타났다(홍성욱, 2012: 13, 21-22).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려는 이런 시도는 20세기 동안 지배적이었던 분과 학문 중심의 발전이 일정한 한계에 직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사회과학 내에서도 여러 분과 학문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 뿐 아니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두 문화의 장벽조차 넘어서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월러스틴(Wallerstein)은 자연과 인간이

리는 존재론적 구분을 약화시키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내부의 움직임  
을 언급하면서 사회과학의 재구조화를 촉구하기도 하였다(윌러스  
틴, 1994; 윌러스틴 외, 1996).

20세기 후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윌슨(E. O. Wilson)의 사회생물학을 들 수 있다. 그는 1975년  
『사회생물학: 새로운 종합』이란 책을 통해 자연과학인 생물학, 진화론  
과 사회과학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사회생물학은 두 문화의 분리를 넘  
어서려는 과정에서 두 문화 간의 충돌을 낳기도 하였다. 당시 페미니  
스트와 진보주의자,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생물학이 현상 유지를 정당  
화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라고 보았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자연화  
하려는 성차별적 학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사회생물학은 진화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이라는 새로운 기획으로 ‘진화’하였다. 바코우(Barkow)와  
코스미디스(Cosmides) 그리고 투비(Tooby)는 1992년에 『적응된 마음  
(The Adapted Mind)』을, 버스(Buss)는 1994년에 『욕망의 진화(The  
Evolution of Desire)』를 출간하였다. 이는 진화심리학을 대표하는 책  
들로서 이 새로운 분야가 다루는 연구 관심과 학문적 견해를 잘 보여  
준다.

과거 사회생물학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달리 1990년대 이후 오늘날  
까지 진화심리학은 하나의 지적 유행이 되고 있다. 버스의 책은 세계  
각국에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진화심리학과  
관련된 수많은 대중서들이 출간되었다. 진화심리학에 대한 언론의 반  
응도 호의적인데, BBC, KBS 등 각국의 공영방송들은 진화심리학의  
견해를 따르는 여러 다큐멘터리들을 제작, 방영하고 있다. 특히 진화심  
리학의 주된 관심사는 남녀의 성, 가족, 아동 발달 등에 두어져 있는데,  
진화심리학의 유행으로 인간 심리, 아동 발달, 남녀 관계와 성차, 가족

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하나의 상식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대중의 생활 세계에서 이 주제들에 대한 진화심리학의 목소리는 페미니즘이나 사회과학의 목소리를 압도하는 것이 현실이다.<sup>1)</sup>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페미니스트들과 사회과학 진영은 진화심리학의 확산에 대해 과거와 같은 강한 반대를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지 않다. 왜 이들은 과거 사회생물학에 대해 보였던 강한 거부와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가? 이 침묵은 암묵적 공정을 의미하는 것인가? 심지어 미국과 한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페미니스트들은 20세기 후반 진화론의 흐름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진화론적 페미니즘(Evolutionary Feminism)’처럼 진화론과 페미니즘을 결합하려는 기획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Gowaty, 1997; 허디, 1994; Hrdy, 1999; Vandermessen, 2004; 2005; 피셔, 2005). 진화심리학자인 버스도 진화론이 페미니즘의 대의에 주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Buss, 1996; Buss and Schmitt, 2011).

한국에서도 진화론과 페미니즘은 갈등보다는 동맹을 맺곤 한다. 일례로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의 과정에서 최재천(2003)은 생물학에 근거해서 부계 혈통주의를 반박하여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에 힘을 실어주었다.<sup>2)</sup> 그는 호주제 폐지에 기여한 공로로 남성 최초

---

1) 성과 관련된 현상을 생물학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진화론의 견해와 사회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사회과학의 견해는 원칙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성이란 현상의 원인은 생물학적 층위와 사회적 층위가 모두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원인은 어느 하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관련된 현상을 ‘중층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인과론적 태도를 갖는다면 진화심리학의 설명과 사회과학이나 페미니즘의 설명을 배타적인 선택과 대립의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970년대 사회생물학 논쟁의 경우는 사회생물학이 제시하는 생물학적 원인과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사회적 원인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런 사고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분할 이후 각각의 분과 학문 내부에서 설명을 완결하려는 태도, 즉 분과 학문 내에서만 원인을 한정하려는 분과 학문 중심의 사고가 낳은 관습의 결과로 보인다.

로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았다. 이는 페미니즘과 생물학 혹은 진화론간의 연대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90년대 이후 페미니스트들이 보여주는 진화심리학에 대한 침묵 혹은 연대라는 현상은 1970년대 사회생물학 논쟁 때와는 극명히 대조적이다. 이런 태도 변화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페미니즘 운동이 1970년대의 전성기를 지나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인가? 물론 이것도 일정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들의 젠더 관념이 더 이상 충돌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사회생물학은 1970년대 제2물결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하던 가족, 즉 남성 생계 부양자/여성 전업주부라는 가족 형태와 성별 분업을 긍정하고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진화심리학의 젠더 관념은 여전히 가족, 가부장제를 자연화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화된 진영과 페미니스트 간의 갈등은 불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진화심리학은 핵가족을 상대화하여 남녀 결합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 그 위치를 재조정하였다. 여기서 여성은 주체화된 개체로서 다양한 남녀 관계를 선택하는 전략적 행위자가 된다. 또한 진화심리학은 남녀 관계에서 조화뿐 아니라 갈등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남녀의 진화된 성 심리와 전략의 차이를 통해 설명한다. 이제 진화심리학은 핵가족을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남녀 관계의 다양성과 갈등의 진화적 원인을 설명하는 데로 초점을 이동한 것이다.

---

2) 최재천은 현행 민법이 규정한 부계 혈통주의가 사회적으로는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모순임을 증명하여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재천은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온전히 암컷으로부터 온다. 생물의 계통을 밝히는 연구에서는 철저하게 암컷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호주제의 근간으로 치부되는 부계 혈통주의는 생물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라며 정치·사회적 근거는 배제한 채 순수한 과학적 사실에만 입각해 호주제의 모순을 지적하여 ‘호주제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것이다(남호연, 2008).

진화론적 사회과학의 이러한 진화는 한편으로 페미니즘과 같은 과거 비판진영의 입장을 누그러뜨렸고, 다른 한편으로 관련 주제의 새로운 사회이론들과의 진화력을 강화시켰다. 예컨대 진화심리학의 관점은 사실상 동시대 사회학자인 올리히 벡의 개인화 논의와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갖는다. 진화심리학은 분석의 초점을 가족 단위에서 남녀 개인으로 옮겼고, 또한 개인의 전략적 선택과 그 선택이 낳는 남녀 관계 갈등에 분석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이런 점은 벡이 말하는 남녀의 가족적 존재에서 개인적 주체로의 변화, 개인 중심의 선택이 불가피해지는 상황, 선택이 야기하는 남녀 갈등에 대한 논의와 진화력을 보인다. 진화심리학와 벡의 개인화론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공통점은 진화론적 사회과학의 발전이 당대의 지배적 사회·정치적 분위기와 사회과학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그런데 최근 개인화 현상이 서구 이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군의 학자들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이 지역의 개인화는 벡이 설명하는 서구 상황과는 달리 주체화된 개인들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가족 지향적 혹은 가족 종속적인 개인들의 가족적 책무와 위험에 대한 조절 노력의 반영이다(Chang and Song, 2010; 장경섭, 2011). 개인화를 둘러싼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차이를 감안할 때, 진화심리학과 벡의 개인화론의 이론적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후기 근대라는 특정한 역사·사회적 맥락, 특히 시대의 지배적 가족-개인 관계 및 젠더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진화심리학적 논의가 비서구적 상황에 적용될 때 개인-젠더-가족-사회 관계에 대해 내용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발전을 거쳐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 II.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 1. 진화사회과학의 등장

인간 삶의 해석에 진화론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진화론의 출현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 19세기 사회학자인 스펜서는 프랑스 생물학자인 라 마르크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사회진화론을 주장하였다(보울러, 1999: 40-45).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의 출간은 사회과학 전반으로 진화적 관념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최종렬, 2005: 38; Ross, 2008). 이렇게 진화적 사고는 사회과학의 출발기인 18~19세기를 채색했으며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사회학, 인류학 등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투르비언, 1989; Poter, 2008; Heilbron, 2008).

이런 역사를 생각할 때 20세기 중반 사회생물학이 진화론, 생물학을 인간 삶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려 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후 1990년대 사회생물학을 뒤이은 진화심리학 역시 인간의 삶에 진화론적 사고를 적용한다는 기획의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1975년 이후 사회생물학이 직면했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생물학과 진화론을 인간 삶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오히려 이런 경향은 더 확대되어 진화론적 접근은 사회과학의 각 분과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이 된 사회과학 내의 진화론적 접근들은 이제 동물 행동 연구를 인간에 외삽하려 했던 사회생물학의 시도를 넘어선다. 각 분과 학문 내에 새롭게 등장한 하위 분과들은 진화심리학(Daly and M. Wilson, 1988; Barkow, Cosmides, and Tooby, 1992; 버스, 2005; 2007; 핑커, 2004), 진화인류학(Symons, 1979; Smuts, 1992; 1995; Betzig, Mulder



and Turke, 1988; Boyer, 1993; Richerson and Boyd, 2004; 피셔, 2005), 진화경제학(Samuelson, 1997; Gintis, 2000; Bowles and Gintis, 2002; 2004; Henrich et al., 2004), 진화정치학(Masters, 1989; Master and Gruter, 1992; Rubin, 2002), 진화법학(Beckstrom, 1993; Browne, 2002; 2005) 등으로 불리고 있다(Barkow, 2006: 7-10). 최근에는 진화론에 대해 가장 소극적이었던 사회학에서조차 진화론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였다(van den Berghe, 1979; Nielsen, 1994; Lopreato and Crippen, 1999; Ellis and Walsh, 2000; Sanderson, 2001; J. Turner, 2000; 2003; J. Turner and Maryanski, 1992; 2008; J. Turner and Stets, 2005). 사회학과 진화론의 결합을 통해 사회학의 이론적 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장하는 이와 같은 흐름을 흔히 ‘진화사회학(Evolutionary Sociology)’ 혹은 ‘생물-사회학(Bio- Sociology)’, 진화행동과학이라 부른다.

‘진화사회과학’으로 통칭되는 이 흐름들은 진화론을 수용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사회과학의 연구에 진화적 아이디어를 부분적으로 차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화경제학의 경우 진화론을 게임이론과 결합하여 진화적 게임이론이라는 영역을 발전시킨다. 일단의 진화경제학자들은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가정하는 기존의 경제학적 가정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인간이 이기심과 이타심을 모두 갖는 존재라는 진화론의 인간학을 수용해서 경제학의 관념을 수정하고자 한다(Henrich et al., 2004). 이렇게 진화론적 아이디어를 부분적으로 혹은 유비의 수준에서 도입하는 것은 쿤트 이래 사회과학 내에서 진화론을 수용하는 오래된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의 진화사회과학의 새로움은 진화론을 수용하는 두 번째 방식에서 두드러진다. 주로 진화심리학과 진화인류학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수용의 방식은 진화론적 아이디어를 부분적으로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생물학에서 발전된 진화론의 원리의 적용대상을 동물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고자 한다. 즉 자연선택, 성선택 그리고 최근에 발전된 진화론의 원리들인 부모 투자 이론, 차별적 번식 성공 이론 등의 진화적 ‘원리’ 자체를 인류학과 심리학 등의 연구에 보다 전면적으로 적용해서 인간 행동과 사회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유전학자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는 “진화를 생각하지 않고는 생물학의 어떠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마이어, 2005: 125)고 했는데 진화심리학자와 진화인류학자들의 상당수는 아마 “진화를 생각하지 않고는 인간과 사회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바코우가 말하듯이 이들은 진화된 인간의 심리를 문화와 사회의 기초로 보기 때문이다(Barkow, 2006: 6). 따라서 이 두 번째 접근을 취하는 진화심리학과 진화인류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인 동시에 인간 생물학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번째 접근 중 진화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진화론의 적용을 대표하며 이 흐름을 주도해왔다. 진화심리학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회생물학과와의 공통성 및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의 중요한 공통성은 이들이 인간의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 남녀의 성 같은 현상을 진화적 원인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남녀 차이에 대해 주로 성선택과 차별적 부모 투자 이론에 기초해서 설명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19세기 다윈 진화론에 의해 제시된 성선택 개념은 자연선택으로 설명되지 않은 동물의 암수 형질—특히 수컷—의 눈에 띄는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성선택 이론에 따르면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

컷 공작의 화려한 꼬리나 수사슴의 거대한 뿔은 짝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다.

차별적 부모 투자 이론은 성선택 이론을 구체화시키는 중범위 이론이다(버스, 2005). 이에 따르면 자식에 대해 초기 투자에서 암수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성 전략, 성 행동의 암수 차이가 생긴다. 암수의 비대칭은 난자와 정자의 비대칭에서 시작된다. 암컷은 난자에 이미 많은 영양물질을 투자한 반면 수컷의 정자는 그렇지 않다. 포유류와 인간에 이르면 이런 암수의 비대칭은 심화되는데 임신과 수유 등을 통해 암컷이 자식에게 투자하는 에너지와 시간은 수컷과는 비교할 수 없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은 진화론의 원리에 따라 남녀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들이 진화론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성적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실상 이들이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은 이런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또한 중요한 차이도 있다. 우선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은 연구 대상 면에서 다르다. 한마디로 사회생물학은 사회성 ‘동물’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면 진화심리학은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사회생물학은 사회성 동물, 예를 들어 벌과 말벌 같은 사회성 곤충, 조류, 영장류 같은 사회성 동물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사회적 행동에 존재하는 규칙들을 탐구해왔다. 윌슨은 개미와 꿀벌 등 사회성 동물에서 관찰된 원리와 패턴을 인간에 확대 적용했을 뿐이며 인간을 직접적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윌슨의 『사회생물학: 새로운 종합』이라는 총 27장에 이르는 방대한 책의 대부분은 사회성 동물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으며 마지막 장인 27장만이 인간을 다루고 있다.<sup>3)</sup> 27장의 인간

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은 인간을 관찰 대상으로 생산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물론 월슨은 인류학적 연구들을 참조하긴 했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발견된 생물학, 진화론적 원리를 인간에 추론적으로 적용하였다.<sup>4)</sup> 따라서 사회생물학은 사회성 동물에 대한 관찰 결과를 인간에 외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생물학자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진화론의 원리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 관찰을 진행한다. 진화심리학자 버스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 혹은 생산하여 주로 남녀의 짝짓기를 진화적 원리에 따라 설명한다. 코스미디스와 투비도 인간의 진화된 심리적 설계(design)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인간을 관찰하거나 심리 실험들을 진행한다. 이들은 인지심리학의 유명한 웨이슨의 선택 과제 실험을 재설계하여 인간의 연역 추론 능력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을 제시한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추상적인 과제보다는 주어진 과제가 ‘사회적 교환’

3) 이 책은 한국에서 요약본이 번역되었고 인간에 대한 장은 번역본에서는 26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 책에는 인간에 대한 장은 27장이므로 여기서는 27장으로 서술한다.

4) 진화론을 인간에 적용한 시도는 월슨 이전에 이미 다윈에서 시작되었다.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간할 때 다윈은 진화론을 인간에 적용하는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였다. 이 책의 마지막 구절에서 다윈이 “이런 발견은 인간에 서광을 비취줄 것이다.”로 간단한 암시를 하는 데 그쳤다. 다윈은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에 대한 자료에 근거해서 인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갖는 위험과 예상되는 저항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인간종의 진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독립적인 저작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1871년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성선택의 원리를 설명하며 2부에서는 이 원리가 인간 외의 다른 종들의 암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증명한 후에 마지막 3부에서 성선택 원리를 인간에 적용해서 남녀 차이와 인종 차이를 성선택을 통해 설명한다. 다윈은 인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당대의 수많은 인류학적 연구들을 참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간의 유래』를 집필했다. 물론 다윈이 당대 인류학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다윈이 성선택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오현미(2012)를 참조.

의 상황일 때 연역 추론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었다(Cosmides and Tooby, 1992; 장대익, 2004). 이렇게 진화심리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자료를 생산하며 인간 행동을 진화적 원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진화심리학과 사회생물학의 두 번째 차이는 사회성 행동을 설명하는 ‘기제’가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생물학은 사회성 동물의 행동을 ‘유전자 수준’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꿀벌 집단의 불임 계층, 즉 일벌이 존재하는 이유를 그들이 여왕벌과 유전자를 3/4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반면 진화심리학은 유전자와 행동을 직접 연결시키기보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인간의 ‘심리 기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이 보기에 인간이 오랜 진화적 시간을 거치면서 직면했던 적응 문제—예컨대, 생존, 배고픔의 해결, 짝 찾기, 포식자 피하기, 사회적 협동, 사기꾼 탐지 등—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진화된 심리적 기제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의 사회적 갈등과 협동, 남녀의 행동 등을 설명하는 원인을 유전자보다는 인간의 ‘진화된 심리 기제’에서 찾으려 한다(Cosmides et al., 1992).

이런 점에서 진화심리학을 유전자 환원주의라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진화된 심리적 기제의 유전적 기초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심리적 기제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은 사회생물학처럼 행동과 유전자를 직접 연결시키지 않으며 이제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입력물(input)에 반응하는 ‘진화된 심리적 기제’의 산출물(output)로 이해된다. 코스미디스와 투비는 이를 ‘주크박스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주크박스는 각기 다른 입력물에 따라 각기 다른 출력물, 즉 음악을 산출한다. 인간의 심리적 기제는 환경에서 받는 상이한 입력물에 따른 상이한 출력물을 낳는다(Cosmides and Tooby, 1992).<sup>5)</sup>

진화심리학의 이런 특성은 이전 시기 사회생물학 논쟁에 대한 반성

의 결과로 보인다. 사회생물학에 대한 일련의 비판들, 즉 동물 연구를 인간에 무리하게 외삽한 데 대한 비판, 그리고 유전자 환원주의 혹은 생물학결정론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진화심리학은 일련의 응답을 내놓았다. 유전자와 행동의 일대일 대응 그리고 유전자 결정론에 따라 행동 변화와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진화심리학은 이를 새롭게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행위를 산출하는 결정 규칙으로서 ‘심리 기제’로 초점을 이동하였다. 또한 동물 연구의 무리한 일반화가 아니라 인간을 탐구 대상으로 하여 진화의 일반성과 인간 종의 고유성을 통합하는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진화심리학은 한편으로는 인간 종에 대한 진화생물학인 동시에 인간과학, 사회과학 안으로 확고히 발을 내딛게 되었다.

양자의 세 번째 차이는 진화심리학의 연구자들인 버스, 코스미디즈, 투비가 원래 심리학, 인류학 등 기존 사회과학에 속한 연구자들이란 점이다. 이는 사회생물학의 경우와 다르다. 사회생물학은 전통적 생물학자가 인간 문제로 확장을 시도한 것이라면 진화심리학은 기존 사회과학자들이 자신의 분과의 공백을 진화적 원리들을 통해 혁신하려는 기획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생물학은 생물학, 즉 자연과학에 속하며 진화심리학은 사회과학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진화심리학의 분과 학문적 지위는 사회생물학만큼 명확하지는 않다. 윌슨의 사회생물학은 생물학, 즉 자연과학의

---

5) 예를 들면 여성의 ‘모성적 성향’이라는 심리 기제는 환경의 조건, 즉 입력물에 따라 다양한 행위패턴을 낳을 수 있다. 트리버스(Trivers, 1974)가 정식화했던 진화심리학의 ‘부모-자식 갈등이론(parent-offspring conflict)’은 이런 모성의 조건적 특성을 설명한다. 사라 블래퍼 허디는 여성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자식을 유기하는 행동이 가능한 반면, 양육 자원이나 부양을 지원할 다른 사람(남편 혹은 친척 등)이 존재한다면 자식을 돌보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Hrdy, 1999). 흔히 이를 ‘조건적 모성’ 혹은 ‘모성은 조건적’이라고 말한다(Rotkirch and Janhunen, 2009: 91).

하위 분과였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은 사회과학의 한 하위 분과인 동시에 자연과학, 즉 생물학을 인간의 사회 행동을 대상으로 확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어느 한 분과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진화심리학은 인간 남녀의 성처럼 자연과 사회의 경계에 걸쳐 있는 대상을 다루면서 자연과 사회의 이원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분할 자체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생물학은 동물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유전자 수준에서 그 행동을 설명하려는 생물학자들의 작업이었고 이를 인간에 추론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진화심리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이를 진화된 심리적 기제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사회과학자들의 작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인간과 동물의 분할을 넘어서 이를 단일한 진화적 원리를 통해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 Ⅲ.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의 젠더 관념 비교: 가족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과학과 사회는 늘 밀접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자기 시대의 맥락에서 분리된 순수한 과학적 작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관찰은 이론 의존적이며(브라운, 1988), 따라서 자연에 대한 관찰은 늘 자기 시대의 언어와 관념을 프리즘으로 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진화론, 사회생물학, 진화심리학 역시 자기 시대의 관념과 현실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들의 성에 대한 관념 역시 동시대의 젠더 관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sup>6)</sup>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은 모두 진화론의 원리, 즉 성선택과 차별적 부모 투자 이론에 기초해서 남녀의 성적 차이를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성에 대해 견해는 각각의 연구자들이 속한 시대적 관념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 둘의 성을 기술하는 초점과 수사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된다. 특히 가족에 대한 견해는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며 페미니스트들의 가장 민감한 반응을 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가족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양자의 젠더 관념을 비교해 보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의 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생물학을 대표하는 윌슨과 진화심리학에서 성적 차이를 연구해 온 대표적 학자인 버스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윌슨의 사회생물학에서 남녀 관계는 주로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된다면 버스의 진화심리학에서 남녀 관계는 더 다양하며 그 중 ‘가족’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 1. 사회생물학의 가족 관념

사회생물학은 남녀의 성적 결합을 대개는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에 대한 윌슨의 견해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그는 우선 핵가족은 거의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본다. 또한 그는 동시대의 사회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핵가족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본다. 그리고 윌슨은 핵가족 내의 남녀 결합을 거의 영

- 
- 6) 과학이 사회 속의 작업이라고 해서 모든 과학적 지식이 사회적 구성의 산물일 뿐 어떤 객관성도 갖지 않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관찰된 내용은 그것이 객관적 실재와 어느 정도 상응성을 갖기 때문에 다른 지식 형태와 구별되는 과학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윈 진화론은 창조론과 구별되는 과학적 지식의 지위를 갖는다.



구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가 남녀 결합이 영구적이라 보는 이유는 영장류와 다른 인간 여성의 성욕 때문이다. 영장류와 달리 인간 여성은 발정기가 따로 없는데 이는 항상적인 성적 수용성을 가지며 결혼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월슨, 1992: 642, 675).

『사회생물학』의 26장 ‘인간: 사회생물학에서 사회학까지’에서 인간의 ‘결합, 성 및 분업’의 내용을 보면 남녀 관계와 가족에 대한 월슨의 견해가 잘 드러난다. 즉 “거의 모든 인간 사회의 구성단위는 핵가족 nuclear family이다(Reynold, 1968; Leibowitz, 1968). 오스트레일리아 사막지대의 수렵 채집민과 마찬가지로 미국 공업 도시의 대중들 역시 이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가족들은 …… 낮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주거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남자들은 사냥동물이나 그에 상응하는 교환용 물건이나 돈을 벌기 위해 돌아다닌다. …… 성적 결합은 부족의 관습에 준하여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며 영구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월슨, 1992: 657).<sup>7)</sup>

여기서 월슨이 묘사하는 가족은 남성이 부양을 하고 여성이 집에 남아 가사 노동을 하는 성별 분업에 기초한 핵가족의 한 종류이다. 역사적으로 이 핵가족은 20세기 중반에 서구에서 제도화된 핵가족—소위 남성 생계 부양자/여성 전업주부 가족—과 닮아 있다. 월슨이 1970년대의 가족 현실과 가족 관념에 깊은 영향을 받았음은 그가 남녀 간의 특정한 형태의 성별 분업을 보편적, 초역사적인 것으로 여기는 데서 잘 드러난다. 월슨은 20세기적 형태의 성별 분업인 남성 생계 부양자

7) 거의 모든 사회의 구성단위가 핵가족이라는 월슨의 주장은 위의 인용에서 보이듯이 동시대의 인류학자인 레이놀드(Reynolds, 1968)와 레보위츠(Leibowitz, 1968)의 글을 토대로 한 것이다. 레이놀드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기원을 원숭이와 영장류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친족과 가족 역시 그러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편 레보위츠는 ‘핵가족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보고 있다는 점은 월슨과 유사하지만 가족을 문화적 구성물로 본다는 점, 그리고 가족은 수렵/채집사회에서 교환 과정을 통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월슨이나 레이놀드와 차이가 있다.

와 여성의 전업주부라는 쌍을 인류 보편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남성 생계 부양/여성 가사 돌봄 분업체제를 인류의 초기 역사나 비서구 사회에 투사하곤 한다. 예를 들면 윌슨은 원시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원인에서 최초의 진정한 인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인류가 사냥을 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본다. 이 설명에서 남성은 집을 떠나 사냥으로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집에 남아 식물성 식량을 채집하며, 친족 네트워크의 지원 속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성별 분업의 모델이 등장한다.

이런 분업으로 남녀는 기능적인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양육은 더 큰 사냥감을 사냥하러 집을 떠난 남성과, 아이들을 돌보고 식물 식량의 대부분을 채취하는 여성 사이의 긴밀한 사회적 결합을 통해 개선되어왔을 것이다. …… 인간의 성적 행동과 가정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 중 많은 부분은 이런 기본적인 분업에서부터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윌슨, 2000: 131)

윌슨의 이런 분석이 20세기적 성별 분업의 반영이라 보는 이유는 농경이나 원예농업 사회에서 남녀의 노동 분업은 이와 다르기 때문이다. 19세기 이전 서구의 성별 분업은 남성의 생계 부양과 여성의 가사와 돌봄이란 식으로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다. 남녀는 모두 가내 생산을 담당했고 남녀의 일은 많은 부분 중첩되어 있었다(자레스키, 1986: 43-45). 또한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소규모 사회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경제 양식—수렵 채집, 원예농업, 목축, 농경—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생계에 기여하는 정도는 동일하지 않다. 일례로 원예농업(horticulture) 사회에서 생산노동은 주로 여성의 몫이며 남성은 극히 제한적 기여를 할 뿐이다. 반면 목축 사회는 남성 노동의 기여가 다른 사회보다 크며, 농경 사회의 생산에서는 남녀의 노동량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Marlowe, 2000: 50-51).

여성이 집안에 머물면서 생산적 노동에서 이탈하게 된 것은 근대와 관련된 변화가 계기가 되었다.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은 공장제 생산을 출현시켰고 그 결과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여성과 아동 역시 공장에서 노동을 하였지만 서구의 역사적 과정은 19세기 말 모성보호 입법으로 여성 노동을 제한하였고 아동기의 강조 속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시켰다. 남성에게 주어진 가족 임금은 남성만을 생계 부양자로 하는 가족 형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런 조건을 고려한다면 남성 생계 부양/여성 전업주부라는 특정 방식의 성별 분업은 남성의 임금만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20세기 중반 서구 선진국의 제한된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다(자레츠키, 1986).

긴 역사를 볼 때 남성이 생계 부양을 하고 여성이 가사를 돌보는 방식의 성별 분업은 불변의 상수가 아니라 역사적인 시기마다 또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늘 변화해왔다(Coontz, 2005). 물론 인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주로 생계 부양을 하고 여성이 주로 돌봄을 담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은 20세기를 제외하면 늘 생계 노동에 종사를 해왔으며 남성이 집밖 노동에 특화된 것은 공장제 생산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의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월슨이 자신의 책에서 상정하는 성별 분업의 구체적 양상은 전형적으로 20세기 남성 생계 부양자 이데올로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 2. 진화심리학의 가족 관념

진화심리학자 버스가 남녀 관계를 보는 방식은 월슨과는 중요하게 구별된다. 버스는 핵가족 그리고 가족 자체를 남녀 결합의 기본 형태로 보거나 보편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버스의 『욕망의

진화』에서 잘 드러난다.

버스는 책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혼인 서약과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 이혼을 겪는다. ……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믿으라고, ‘오직 한 사람’을 꼭 찾으라고 교육받았다. 일단 내 사랑을 찾기만 하면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후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어긋난다. 이혼율을 힐끗 보기만 해도, 또는 30~50퍼센트에 이르는 혼외정사의 빈도나 …… 보더라도 우리의 환상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 배우자 사이에 벌어지는 반목과 불화는 흔히 그 결혼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진다. 이러한 갈등은 결혼 생활의 참모습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하는 행태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개인적인 무능함이나 미숙함, 신경증, 의지박약 등을 의미하거나 단순히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 관점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짝짓기의 전 단계에 걸쳐서 갈등은 늘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단순히 예외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 이처럼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는 남녀 간의 갈등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좀 더 심오한 무엇이, 인간 본성을 잘 드러내 주는 그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버스, 2007: 17-18)

버스는 여기서 평생을 함께 하는 가족에 대한 관념은 하나의 허상일 뿐임을 지적한다. 특히 다음의 주장들은 월슨의 『사회생물학』의 내용과 아주 대조적이다. “모든 문화권에서 이혼이 보편적이며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이혼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 함께 산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버스, 2007: 252) “짝을 맺는 것은 평생 유지될 수도 있지만 종종 짧은 기간이 되기도 한다.”(버스, 2005: 191) “지금까지 짝짓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거의 전부 결혼에 집중

되어왔다. 그러나 인간의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은 혼외정사로 가득 채워진 조상들의 과거를 폭로하고 있다.”(버스, 2005: 276)

이런 주장들에서 보듯이 진화심리학자 버스의 관심은 가족보다는 남녀 개인들의 ‘다양한’ 짝짓기 전략이다. 그는 짝짓기를 두 종류, 즉 장기적 짝짓기와 단기적 짝짓기로 구분하고 있다. 장기적 짝짓기는 결혼이나 동거 같은 비교적 지속적인 남녀 관계를 말하며 단기적 짝짓기는 하룻밤의 정사(혼외정사를 포함해서)나 연애 같은 비교적 일시적 관계를 뜻한다. 진화심리학에서 남녀 개인들은 자신의 조건과 맥락, 필요에 따라 장기적 혹은 단기적 짝짓기 전략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버스는 특히 장기적 짝짓기, 즉 결혼이나 가족이 남녀에게 늘 이점을 갖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하’에서 이점이 있다고 본다. 즉 “결혼을 추구하고, 여성에게 수십 년간 투자하게 만드는 남성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선택을 통해, 우리는 장기적 짝짓기가 적어도 어떤 상황하에서는 적응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버스, 2005: 202). 이렇게 진화심리학에 와서 결혼이나 가족은 보편적인 남녀 결합의 양식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전략적 비용/편익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버스, 2005; 2007). 이제 진화심리학이 보는 가족은 남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성과 해체, 재구성에 열려 있는 가변적 것이 되었다.

또한 진화심리학은 이전만큼 명시적으로 성별 분업을 언급하지 않으며 그 자연적 기초를 밝히려는 전시대의 시도를 반복하지도 않는다. 진화심리학은 특정한 성별 분업의 형태를 강조하기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양육에 관여한다는 일반적 경향에 대해서 논할 뿐이다(버스, 2005: 283). 또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짝 선호가 경제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남성의 경제적 부양을 암시하

고 있다(버스, 2005: 165-177).

즉 진화심리학은 인간의 역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제적 부양에 관여하고 여성은 양육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가정하지만 남녀가 배타적으로 이런 성별화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진화심리학의 이런 가정은 여성이 경제적 부양을 하거나 남성이 양육을 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의 성별 분업에 대한 진화심리학의 관념이 사회생물학과 크게 달라졌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이들 간에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 사회생물학은 이 성별 분업에 기초한 남녀 관계가 기능적 의존성에 따라 안정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면 진화심리학은 남녀 갈등을 이전보다 더 많이 강조한다는 점이다.

남녀 관계의 탈가족화는 진화심리학이 출현하던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시기에 결혼 비율은 1970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혼외정사, 이혼율의 급증으로 가족제도는 제도적 안정성을 잃었다(Lewis, 2001). 동거와 독신가족, 복합가족 등의 증가로 가족은 다양화되었고 과거 지배적이었던 부부와 생물학적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전체 가족의 일부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핵가족은 남녀 관계에서 중심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월슨의 사회생물학이 출현했던 1970년대에는 대다수의 남녀는 가족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진화심리학이 출현한 1990년대 와서 가족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성 혹은 해체되는 가변적인 것이 되었던 것이다(오현미, 2012).

이상에서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이 가족과 성별 분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비교해보았다. 한마디로 사회생물학은 20세기 핵가족과 성별 분업을 보편화, 자연화하는 경향을 갖는 반면 진화심리학에서 가족은 남녀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버스는 가부장제 혹은 핵가족의 영원성을 가정하지도 않으며 그

것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으로의 이러한 학문적 변화는 특수와 보편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생물학은 남녀 관계의 특수한 양상인 가족을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에 이르러 사회생물학이 초점을 맞추었던 핵가족은 남녀 관계의 여러 양상 중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특수와 보편의 관계는 남녀 관계에서 조화만을 사회생물학이 보았다면 진화심리학은 조화와 갈등을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핵가족과 가부장제를 자연화한다는 사회생물학에 대한 비판이 진화심리학에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생물학에서 남녀 관계를 보는 기본단위였던 ‘가족’을 대체하는 진화심리학의 기본단위는 무엇인가? 뒤이어 보겠지만 그것은 남녀 관계에서 다양한 장기적, 단기적 관계를 오고가는 성적 전략을 구사하는 남녀 개인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진화심리학에서 드러나는 가족 중심성의 약화는 사회학자인 올리히 벡이 말하는 개인화 테제와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 둘의 유사성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벡의 개인화 논의를 남녀 관계 맥락에서 검토해보자.

#### IV. 올리히 벡: 가족과 개인화

벡은 1986년 출간된 『위험사회』(1997)에서 20세기 후반 서구 사회의 변동을 위험사회와 개인화의 경향을 통해 포착하였다. 그는 위험사회와 개인화를 2차 근대성의 맥락에 놓으면 서 1차 근대성에서 2차 근대성으로의 이행 속에서 사회구조와 가족의 변동을 설명한다. 벡에 의하면, 성찰적 (실제적 혹은 결과적으로는 반영적) 근대성의 과정이 급

진화된 결과로서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여기서 핵심은 사회과학을 추동했던 인간학적 태도가 부식된 것이다. 1차 근대성의 특징이었던 민족적이고 집합적인 관념은 2차 근대성에 와서는 일종의 좀비 개념으로 전락했다.<sup>8)</sup> 1차 근대성은 민족국가와 계급, 가족, 인종과 같은 집합적 정체성에 기초했다고 본다. 이런 1차 근대성은 개인화, 세계화, 실업, 생태 위기라는 네 가지 변화에 의해 도전받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도래한 2차 근대성에서 우리는 개인적 관계의 변화뿐 아니라 자본주의와 일상생활의 상이한 형태, 그리고 새로운 지구적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Beck and Beck-Grensheimm, 2002: 206).

백은 1차 근대성과 2차 근대성의 관계를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즉 1차 근대성 원리의 급진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화’란, 1차 근대성의 개인주의가 더 급진화되고 여성을 포함한 대중들에게로 더욱 민주화된 결과이다. 개인화의 과정은 1차 근대성하에서는 사람들을 집단적 지위에 연계된 전통적 역할과 의무에서 해방시켜 개인 단위로 사회와 경제에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가족을 형성하여 이를 통해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였지만, 2차 근대성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체적 성격을 갖는다. 즉 (2차 근대적) 개인화는 첫째 사람들을 지위에 기초한 ‘계급’에서 해방시킨다. 둘째로 개인화는 전업주부라는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켰다. 셋째로 개인화는 노동 규범과 양식을 느슨하게 만들어 유연 고용, 실업의 다원화, 작업장의 탈중심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2차 근대성에서는 계급이 아닌 개인이 사회적 삶의 재생산 단

8) 스코트 래쉬의 해석에 의하면, 백이 분석한 1차 근대성은 국가와 집합성의 논리에 의해 정의되는 파슨스적인 사회 체계이다. 그러나 2차 근대성은 정상적인 카오스체계로 정의된다. 또한 1차 근대성은 구조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면 2차 근대성은 흐름의 논리에 지배된다. 이런 변화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된 근대성으로의 이행과 관련된다(Lash, 2002: vii).



위가 된다(Beck and Beck-Grensheimm, 2002: 202-203). 2차 근대성에서 개인주의는 규칙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불확정적이고 위험으로 가득한 불안정한 자유이다(Lash, 2002: vii).

여기서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구별되는데 개인주의가 보통 하나의 태도나 선호로 이해되는 반면 개인화는 개인들의 태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거시사회학적 현상을 지시한다. 바우만과 기든스가 개인화를 개인의 측면에서 의식적 선택이나 선호로부터 유래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벡은 이와 다르다(벡, 2010: 24-25). 벡은 개인화를 근대적 제도들에 의해 개인들에게 강제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화는 해방의 측면과 동시에 개인들의 재통합 및 통제양식의 등장과 관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벡, 1997).<sup>9)</sup>

벡은 이런 현실을 파슨스(Parsons, 1962: 101)의 용어를 빌려 “제도화된 개인주의”로 칭한다. 이는 개인화가 제도와 무관하거나 제도에서 개인이 풀려나는 것이라기보다, 제도에 의해서 개인화가 지지되고 심지어 강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법의 영역과 노동시장에서 발견된다. 개인화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인 기본권들, 가족법, 이혼법, 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같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벡, 2010). 국가의 법과 노동시장은 사람들에게 개인으로 살아가기를 명령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화는 선택의 개방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 선택을 강제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벡-게른스하임, 2010: 128).

벡이 보기에 개인으로 살아가기를 명령하는 제도적 핵심은 노동시장이다. 변화된 노동시장은 직장인들이 가족적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시장의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sup>10)</sup> 즉 시장경제

---

9) 벡은 ‘생활 상황’이라는 객관적 차원과 ‘의식’이라는 주관적 차원 두 가지를 통해 개인화를 설명한다(벡, 1997: 211-212).

가 원하는 것은 가족의 구속에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이다. 과거에는 이런 시장의 요구가 남성에게 미쳤고 가족의 요구는 여성의 몫이었다. 그러나 남녀 모두가 노동시장에 진출한 오늘날 시장은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표준을 남녀 모두에게 요구하게 된다(백·백-게른스하임, 1999: 78). 이런 의미에서 그는 2차 근대성의 개인주의를 ‘노동시장 개인주의’라고 칭한다.

노동시장에 의해 강요된 개인화는 여러 모순을 안고 있다. 백이 말하는 2차 근대성에서 ‘개인화’는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으로서의 개인성(individuation)’보다는 개인이 자율성을 행사할 실질적 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개인이 되는 ‘운명으로서의 개인성(individualized individual)’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점은 바우만과도 연결된다(Bauman, 2002). 이런 맥락에서 백의 개인화는 개인주의라는 가치의 문제보다는 개인화된 존재 양식을 의미한다.<sup>11)</sup> 역설적으로, 개인화는 개인의 자율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화 과정인 것이다. 개인은 전통적 속박과 부양 관계에서 풀려나지만, 그 직후에는 표준화되고 통제받는 노동시장 내의 존재이자 소비자라는 제약 아래 놓이며, 궁극적으로 2차 근대적 상황에서는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조건에 의해 강력히 지배당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화가 급진적이 된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215-216).

과거의 계급 문화에 따른 가족적 생애주기는 이제 개인화로 인해 일종의 제도적 생애 유형에 의해 대체된다. 개인화는 바로 생애와 생활

10) 백이 보기에 시장의 요구와 달리 가족은 정주를 원하며 이는 시장과 가족생활이 갈등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11) 백의 개인화는 individualization을 말하는데, 자립적 능력과 무관한 개인화이므로 자립할 능력과 조건이 확보된다는 의미의 개인성인 individuation과 구별된다. 또한 백의 개인화는 객관적 존재 양식을 의미하기에 주관적 태도나 가치의 차원인 individualism과도 구별된다.

상황이 과거의 표준화된 생애에서 각자가 상이한 조건에 맞게 자신의 손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아 중심적 세계관을 발전시킨다. 개인들을 실제로 규정하는 외부의 제도적 조건은 비가시화되고 모든 것은 마치 스스로 내린 결정의 결과인 것처럼 이해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에 의해 생산된 위험과 모순은 주관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 이혼과 같은 많은 사건들은 노동시장과 같은 외부적 힘과 관련되어 이해되기보다 각자의 실수로 간주되게 된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215-222).

개인화의 결과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며 여성들은 개인화로 인해 모순에 직면한다. 여성들은 귀속적 역할(주부)에서 해방될 것인가 낡은 귀속적 역할로 재연결될 것인가 사이의 모순에 직면한다. 가족적 결속과 부양의 구조는 개인주의화의 영향을 받게 되며 그 결과 여성들은 남편의 부양에서, 즉 전통적 주부라는 물질 기초에서 점차 자유로워진다. 한편 남성들도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유일한 부양자의 명에서 해방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화목도 약해지게 된다. 남성이 부양자 역할에서 해방되는 것은 가족내부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시장이라는 가족외적 과정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188-189).

요컨대, 2차 근대의 배경으로서 지구화되고 정보화된 자본주의가 창출한 노동시장은 유연성과 이동성을 요구하며 이것은 가족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립적인 개인, 무자녀 개인을 요구한다(백, 1997: 193). 새롭게 출현한 노동시장의 조건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빈번한 이동성과 고용불안정, 고용유연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가족생활의 정주 및 안정성에 대한 요구와 충돌하게 된다. 노동시장과 가족 관계가 갈등한 결과는 가족의 약화를 낳는다. 백이 보기에 작금의 가족위기는 남녀 간 갈등이 원인이 아니라, 가족외부의 힘이 개인의 영역을 왜곡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204).

개인주의화가 가족 내부로 확장되면서 함께 사는 형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남녀의 조건을 분리시키는 개인주의화는 역으로 그들을 다시 결합시키기도 한다. 전통이 점점 약해지면서 사람들은 사라진 것들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찾지만 이런 관계의 다양성이 안정된 일차관계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사람들이 관계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친교 모두를 원하는 한,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 기초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홀로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 생활과 가족을 원한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190-191). 그러나 가족과 개인의 생애 사이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 느슨해진다. 특정한 삶의 단계에 따라 개인들은 생애 전체를 통해 다양한 가족적 및 비가족적 ‘함께 살기’ 형태를 오가게 된다. 그 결과 남녀 개인의 생애의 자율성은 가족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결국 개인적 삶에 대한 가족의 속박은 약화되거나 불가능해진다. 그 결과 전통적 가족이 아닌 협상으로 맺어진 임시적 가족 유형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188-211).

이상에서 올리히 벡의 개인화를 가족과 관련해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그렇다면 진화심리학과 벡의 논의는 어떤 점에서 친화력을 갖는가? 다음의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이를 살펴보자.

## V. 진화심리학과 올리히 벡: 친화성과 차이점

진화심리학이 가족이나 남녀 관계에 대해 갖는 생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생물학과는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진화심리학의 이런 견

해는 실상 동시대의 사회과학자들과 더 많은 친화력을 갖고 있는데, 특히 20세기 후반의 대표적 사회학자인 백의 개인화 이론과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버스와 백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관계의 기본단위를 가족보다는 개인으로 보고 있다. 이제 가족은 남녀 관계의 다양한 양상 중 하나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둘째, 이로 인해 남녀 관계는 제도가 부여한 역할과 규범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게 된다. 개인의 선택 행위에 대한 관심은 가족제도가 부여하는 역할, 성별 분업에 대한 분석보다 남녀가 행사하는 다양한 전략적 선택의 맥락 그리고 선택이 지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 중시된다. 셋째, 이제 남녀 관계는 개인이 내리는 선택의 결과가 되면서 남녀 관계는 점차 조화나 합의보다는 갈등적 관계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진화심리학에서 제시하는 개인화에 대한 개체중심의 심리적 접근과 백이 주장하는 급진화된 제도화의 귀결로서 개인화는 변화 과정의 질적 연속성과 개체적 선택의 자율성의 차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백이 상정하는 2차 근대의 상황에서 개인화된 개인들의 정신적 주체화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부정되지 않는 한, 두 논의의 선택적 친화성은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

## 1. 남녀 관계의 기본단위: 가족에서 개인으로

진화심리학자 버스와 사회학자 백은 1990년대 이후 변화된 사회 현실과 젠더 관념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론화에 반영하고 있다. 사회학자로서 백은 보다 의식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의 변화를 포착하고 이를 '개인화'로 개념화하였다. 반면 진화심리학자 버스는 보다 덜 의식적으로, 사회생물학에서 당연시하던 가족과 성별 분업에 대

한 강조에서 벗어나 남녀 개인의 성 전략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

우선 백은 개인화 과정을 산업화에서 현대에 이르는 장구한 사회 변화에 따른 세 단계에 걸친 과정으로 이해한다. 즉 “1단계, 즉 가족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구성되었던 곳에서는 남녀 어느 쪽도 개인적 일대기를 갖지 않았다. 2단계, 즉 ‘확대가족’이 붕괴되기 시작했을 때는 남자들이 그들의 삶을 꾸리는 데 주도권을 갖도록 기대되었다. 가족 응집력은 여성 권리의 희생을 대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새로운 3단계가 시작되었다. 남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축복과 짐을 부여받은 새로운 시대가”(백·백-게른스하임, 1999: 144).

확대가족에서 핵가족 그리고 개인화라는 세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개인들은 남녀 각각이 자신만의 일대기를 갖는 과정으로 변화해왔다는 것이다. 개인화의 결과는 여성들에게 가족 중심의 인생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에 초점을 맞춘 인생 계획을 세우게끔 만든다.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가족의 ‘부속물’로 여기지 않고, 권리와 이해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와 선택지들을 가진 한 사람의 개인으로 여기고 있다.”(백·백-게른스하임, 1999: 118) 백의 이런 분석들은 오늘날 남녀 관계는 과거처럼 가족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없으며 남녀의 정체성도 가족 속의 역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뜻한다. 이제 남녀는 가족 속의 누군가로 살아가기보다는 가족과 비가족적인 삶을 오가며 그/그녀라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버스의 진화심리학은 사회 현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인간 남녀의 보편적인 성향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점에서 진화심리학과 사회생물학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남녀를 생물학적 차이를 갖는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이 남녀 관계를 묘사하는 방식은 사회생

물학과 달리 남녀 개인에서 출발한다. 진화심리학은 핵가족을 남녀 관계의 기본단위로 보지 않으며 대신 남녀 관계를 전략적 행위자로서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남녀는 성에 따라 각기 다른 성적 전략을 진화시켰다고 본다. 진화심리학의 경우, 포유류와 인간은 자식에게 남녀가 각각 비대칭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다고 설명한다. 암컷과 여성은 임신과 수유 등으로 자식에게 더 많이 투자한 반면 수컷과 남성이 한 번의 짝짓기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는 여성보다 극히 적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비대칭적 투자로 인해 남녀 행동과 성 전략의 차이가 생긴다(버스, 2005: 452-453). 이제 남녀는 성적 행동에서 전략적 차이를 가지는 개별 행위자일 뿐이며 남녀 관계는 반드시 가족으로의 필연적 결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들은 각자의 전략에 따라 단기적 관계 혹은 장기적 관계를 이동할 뿐이다. 이제 가족은 남녀가 맺을 수 있는 여러 관계들 중 하나이다. 남녀 관계는 가족 외에도 다양하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남녀 개체가 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개체의 비용과 편익에 따른 것이다.

버스의 진화심리학의 개체 중심의 접근은 진화론 내에서 20세기 동안 집단 선택설이 약화되고 개체 선택설이 지배적 이론이 되는 변화와 관련된다.<sup>12)</sup> 진화론적 페미니스트 허디는 개체 선택설이 부상되면서 여성과 남성을 하나의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사고하기보다 상이한 이해관계와 욕구를 가진 개체로 보는 관점이 일반화되었다고 주장한다(Hrdy, 1999).<sup>13)</sup>

---

12) 진화생물학 내에서 집단 선택설이 약화되고 개체 선택설이 주류가 되었지만 윌슨(E.O. Wilson)은 집단 선택설 혹은 다수준 선택설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윌슨, 2013).

13) 20세기 후반 사회학이론에서는,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신좌파의 비판 이후 구조기능주의에 의해 억압되었던 행위자의 자율성을 이론적으로 복원시키려

이렇게 가족 중심성이 약화되고 개인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버스와 백의 논의는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다. 그렇지만 양자의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 백은 가족의 약화와 개인화를 사회역사적인 조건이 변화한 결과로 본다. 반면 버스나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를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는 것이다(버스, 2007: 18). 이런 차이는 방법론상 백이 사회과학의 전통적인 분석을 따르는 반면 진화심리학자인 버스가 진화론이라는 생물학적 분석을 따르는 데서 비롯된다. 사회과학은 19세기 후반 진화론의 영향과 단절하면서 20세기의 문화주의적 경향 속에서 사회적 현상을 사회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인과론적 태도를 취하여왔다(오현미, 2012). 반면 진화심리학은 진화론의 생물학적 분석에 따라 자연적 원인에 일차적 비중을 두는 인과론적 전략을 따르고 있다. 이런 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현상, 즉 가족이 약화되고 개체화되는 현상의 근거를 각기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게 된다.

물론 백과 진화론의 설명은 친화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양립 가능하기도 하다. 이들은 동일한 현상을 분석하는 원인의 층위를 달리 볼 뿐이며 그 원인들은 원칙적으로 상호 배제적 관계는 아닌 중층적 결정의 관계일 수 있다. 남녀 관계, 성이란 현상은 여러 원인에 의해 중층 결정되는 것이며 백과 버스의 설명은 많은 경우 양립 가능하다.

---

는 시도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구조기능주의가 ‘과잉 사회화된 인간’을 가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정당화하는 보수적 성격을 떨 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결여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환이론은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의도적 행위자가 사회적 현상의 기초라고 가정한다.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은 이후 사회학 내부에서 거시동역학적 분석이 쇠퇴하고 사회적, 경제적 제도와 행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한다(알렉산더, 1993; 박상현·이태훈, 2011: 106-107). 사회과학의 이런 흐름과 진화론의 경향은 흥미로운 평행을 보인다. 진화심리학과 진화론적 페미니즘은 개인 행위자를 축으로 설명을 구성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생물학 내적으로는 집단 선택론이 쇠퇴하고 개체 선택론이 부상한 결과이지만 사회과학 내에서 거시적 설명의 쇠퇴와 궤를 같이한다.



## 2. 제도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가족에서 개인으로의 이동은 남녀 관계에서 과거에는 주변적이었던 현상, 즉 ‘선택’을 지배적 현상으로 만든다. 과거처럼 남녀 관계가 가족으로 제도화되었을 때는 개인의 ‘선택’은 지금보다는 중요성이 훨씬 미미했다. 가족‘제도’란 남녀 관계의 반복적 패턴을 뜻하며 여기서 개인들의 선택은 관습 속에서 이루어진다. 남녀 각 개인은 가족 속의 역할—생계 부양자, 주부 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또한 특정한 가족제도에 상응하는 규범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처럼 남성 생계 부양자/여성 전업주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개인은 가족제도의 대리인(agent), 심지어 수인(prisoner)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개인에게는 가족제도가 내린 처방(prescription)에서 벗어난 대안적 선택지가 많지 않으며 따라서 대안들을 둘러싼 숙고와 선택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핵가족이 남녀 관계의 지배적 형태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개인들은 관계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된다. 결혼, 동거, 독신, 그리고 이혼과 재혼 등 여러 가족적·비가족적 삶에 대한 선택이 과거보다 더 쉬워졌다. 남녀 개인의 선택은 더 이상 특정한 가족제도가 처방하는 규범과 역할에 의해 강하게 제약되지는 않는다.<sup>14)</sup> 남녀는 다양한 관계의 대안들을 놓고 각각의 성별 이해관계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 및 조건에 따른 숙고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가족 규범이 약화되면서 남녀의 이런 선택을 수렴시키는 기초는 취약해진다. 이는 여성에게는 기존의 가족제도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해방

---

14) 물론 이 선택들은 무한히 다양한 대안들 속에서 자유롭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 선택을 과거에는 가족제도가 제약했다면 이제는 다른 요인들—예를 들어 시장과 같은 경제적 조건—이 제약할 수 있다. 백은 이를 ‘노동시장 개인주의’라고 부른다.

의 과정이지만 이제 남녀 모두는 자신의 삶을 매번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세기 후반의 이런 변화들은 벡의 논의에서 잘 묘사되고 있으며 또한 버스와 같은 진화심리학자들의 연구 주제에 반영되고 있다.

벡이 보기에, 독일에서 과거 19세기 후반까지 혼인은 당사자들의 의지로부터 독립된 도덕적·법적 질서로 여겨졌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화는 이와 정반대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제 개인의 일대기들은 전통적인 계율과 확실성, 외부적 통제와 일반적인 도덕률로부터 떨어져 나와 개방화되고 개인의 결정에 따라 계속 달라지며 각 개인에게 일종의 과제로 제시된다(벡·벡-게른스하임, 1999: 28). 즉 “개인들은 고독한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혼자 자기를 책임져야 하고, 오롯이 자기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하며, 그리하여 자신의 삶과 사랑을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를 지경에 처해 있다.”(벡·벡-게른스하임, 1999: 29)

이전에 제도가 대신했던 많은 결정들은 개인의 손에 자유의 이름으로 다시 주어진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자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에 대한 압력이나 강제이기도 하다. “두 파트너에게 가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여성의 역할이 종속적이라는 관념을 논박하는 데서 확실히 많은 역할을 했다. 그와 그녀 모두 그들 나름의 권리와 관심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이처럼 얻은 것이 있다면 함께 잃은 것도 있다. 말로는 아주 간단해 보여도 일상생활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 계획, 우선 사항들로 무장한 채 공통의 접근 방법을 찾기 위해 두 사람이 싸우는 일은 치열한 전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벡·벡-게른스하임, 1999: 164-165). 요컨대 벡이 말하는 개인화는 ‘제도의 처방’을 ‘개인의 선택’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버스의 진화심리학도 남녀 관계에서 개체의 ‘선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사회생물학보다는 동시대 사회학자인 백과 더 가깝다. 월슨처럼 남녀 관계를 가족 관계와 거의 동일시할 경우 남녀 관계에 대한 개체의 선택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버스는 남녀 관계에서 가족 외의 다양한 양상, 즉 장기적, 단기적 관계 모두를 포괄하며 장기적 관계 특히 가족만을 특권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택’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으로 개체가 그 관계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하고 왜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월슨에게 남녀 관계에서 장기적 관계인 가족이 진화한 생물학적 이유가 무엇인가가 관심사라면, 버스에게는 남녀 각 개체가 왜 어떤 경우에는 장기적 관계를, 다른 경우에는 단기적 관계를 선택하는가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관심사가 된다.

진화심리학은 남녀 관계에서의 이런 선택을 ‘전략적 선택’이라 부르며 이를 진화된 남녀의 상이한 필요, 즉 성선택에 관한 압력의 차이를 통해 설명해왔다. 성별로 구별되는 남녀 개체들은 진화론에 의하면 상이한 선택압력과 해결해야 할 적응적 과제를 갖는다. 진화론은 인간 남녀의 경우 자식에 대한 초기 투자에서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성 전략을 갖게 된다고 본다. 여성은 자식을 임신할 경우 10개월의 임신과 출산, 수유라는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이게 된다. 반면 남성은 단지 몇 시간의 성행위 후에 여성과 달리 양육에 대한 부담을 거의 지지 않고 떠날 수도 있다.<sup>15)</sup> 이런 남녀의 차이는 남녀 각각 자신의

---

15) 성관계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여성과 남성에게 비대칭적이다. 이는 1970년대 이후 2세대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고유한 위험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일례로 반스는 『쾌락과 위험(Pleasure and Danger)』이란 책에서 2차 성 혁명이 여성에게 가져온 쾌락과 위험의 양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Vance, 1984). 여성에게 성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관계의 결과로 아이가 생길 경우 남성은 그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지만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경구 피임약과 낙태의 합법화는 이런 위험을

적응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상이한 성 전략을 진화시켰다(버스, 2005: 162-163). 개체로서 남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을 행사하며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 남녀 관계에서는 성행동의 전략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버스는 왜 남성은 어떤 경우 단기적 전략을 구사하고 다른 경우 장기적 전략을 구사하는지 그리고 왜 여성은 장기적 전략을 선호하면서도 단기적 전략을 구사하는지를 남녀 각각의 상이한 적응적 이익과 비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버스, 200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벡과 버스는 남녀 관계에서 선택이 중시되는 상황을 강조하고, 남녀 개인의 선택이 남녀 관계를 결정짓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 3. 조화에서 갈등으로

자신만의 일대기를 갖게 된 남녀, 그리고 이들이 각기 상이한 요구와 조건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그 ‘선택’이 많은 경우 갈등을 낳음을 뜻한다. 남녀의 선택과 협상은 과거처럼 가족제도가 강제하는 예정된 조화나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며 힘겨운 협상과 논쟁을 요구하게 된다. 예컨대, “아이들을 몇 명이나 낳고 언제 낳을 것이며, 누가 돌볼지 하는 문제, 일상의 허드렛일을 분배하는 만성적인 문제, 피임

---

감소시켜 여성에게 과거보다 더 큰 성적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임 실패로 인한 부담은 남성의 몫이 아니라 항상 여성의 몫이다. 기술적, 문화적 변화는 여성의 위험과 남녀 간 위험의 비대칭성을 감소시켜왔다. 하지만 여전히 십대, 이십대를 포함한 가임기 여성들이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피임기술의 발달과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생물학적 차이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정 …… 이 모든 문제들이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남자의 관점과 여자의 관점에 따라 이 문제가 얼마나 다르게 보일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령 아이를 낳겠다는 선택은 잠재적 어머니와 잠재적 아버지에게 정반대의 영향을 주게 된다.”(백·백-게른스하임, 1999: 79)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가령 다른 지방에서 직장 찾기, 다른 방식으로 허드렛일 분배하기, 가족계획 수정하기, 다른 사람과 성관계 갖기 등)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결혼한(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남녀 간에 싸움이 시작된다. 이런 문제들에 관한 결정은 우리에게 양성이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자와 여자에게 어떻게 다르게 다가가는지를 깨닫게 한다. 예를 들어 누가 아이를 돌볼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직업 경력이 우선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누가 누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지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백·백-게른스하임, 1999: 61)

버스가 보기에, 인간 남녀의 짝짓기는 조화롭고 쉽게 합의에 도달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모순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버스, 2007: 18-19). 월슨의 사회생물학이 남녀를 가족 관계를 통해 접근할 때 남녀의 이해갈등과 불일치는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다. 월슨에게서 남녀 차이들—성욕과 힘, 성향에서의 차이—은 부부간의 결속과 성별 분업을 위한 것으로 따라서 가족의 조화와 합의의 기초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진화심리학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 개인들의 이해관계의 차이, 성 전략의 차이로 연결되고, 남녀 관계에서 갈등과 불일치의 근거로 여겨진다.

진화심리학이 보기에 남녀는 진화의 과정에서 각기 다른 성선택의 압력에 직면하였다. 이 선택 압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남녀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발전시켰고 이를 이론화한 것이 ‘전략적 간섭 이론(theory of strategic interference)’이다. 전략적 간섭이란 어떤 한 사람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구사하고, 다른 한 사람이 상대방의 욕구 충족이나 전략의 성공을 방해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가 동일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한 성의 전략이 다른 성의 전략을 간섭하고 방해하기 때문이다. 연애와 결혼, 동거를 포함하는 인간 남녀의 짝짓기는 서로에 대한 전략적 간섭으로 인해 갈등을 빚게 된다. 버스의 진화심리학에 대한 교과서인 『마음의 기원』에서는 ‘성적 갈등’ 자체가 하나의 장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버스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진화심리학의 연구들은 성폭력, 강간 등 남녀 간의 갈등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Daly and Wilson, 1988).

이렇게 백과 버스는 둘 다 개인, 개체의 선택을 강조하고 그 선택이 낳을 수 있는 갈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란 점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백은 남녀 갈등의 원인을 주로 경제적 원인으로 설명한다면 진화심리학자인 버스는 그 원인을 생물학적 원인으로 설명한다. 백이 보기에 가족은 갈등의 무대일 뿐 원인은 아니다. 단지 갈등은 언제나 사적이고 개인적 갈등으로 나타나기에 남녀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진정한 원인이 흔히 은폐될 뿐이다. 앞서 보았듯이 백은 남녀 갈등의 원인은 조화되기 힘든 두 개의 노동시장 일대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즉 “외부적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겉으로는 개인적 실패로—대부분은 여성 배우자의 잘못으로—보이는 사건들이 실제로는 특정한 가족 모델, 즉 하나의 노동시장 일대기와 평생의 가사 노동 일대기는 조화시킬 수 있지만 두 개의 노동시장 일대기는 조화시킬 수는 없는 가

족 모델의 실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시장 일대기는 내적으로 두 배우자가 모두 자기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백·백-게른스하임, 1999: 31). 이는 곧 노동시장의 요구들과 온갖 종류의 (가족, 결혼, 어머니 되기, 아버지 되기 또는 우정) 인간관계의 요구 사이의 모순의 표현인 것이다. 노동시장이 두 남녀에게 요구하는 개인화는 이들의 화해와 조화를 어렵게 하며 갈등의 실제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진화심리학은 남녀 갈등의 원인을 좀 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버스는 진화론의 설명을 따라 남녀의 진화된 성적 차이들 예를 들어 초기 부모 투자에서 남녀의 차이, 그에 따른 배우자 선호에서의 차이, 성 전략에서의 차이 등을 그 이유로 본다. 즉 남녀 갈등의 이유를 인간 본성에서 찾는다.

이렇게 백과 버스가 갈등의 원인을 달리 보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이런 차이는 백이 사회과학의 전통적 접근을 취하는 반면 버스가 진화론에서 연유한 자연과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차이이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20세기적 분업 구조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원인의 소재를 각기 다르게 접근하여왔다. 사회과학은 사회적 원인에 주목하며 진화심리학은 자연적 원인, 진화적 원인에 주목한다. 각기 다른 원인은 선택의 문제나 상호 배제적인 원인들은 아니며 이 양자는 실은 양립 가능한 원인들이다. 현상적으로 이는 경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화심리학이 말하는 자연적 원인이 백이 말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에 의해 더 전면화되고 현재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연적 원인이 사회적 원인과 결합하면서 경제적, 문화적 환경과 같은 시대적 조건에 따라 조화 혹은 갈등의 내용, 정도,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 Ⅵ. 비교 사회적 평가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진화심리학에서 제시하는 남녀 관계에 대한 개체중심의 심리적 접근과 백이 주장하는 급진화된 제도화의 귀결로서 개인화는 변화 과정의 질적 연속성과 개체적 선택의 자율성의 차원에서 중요한 차이가 노정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백이 상정하는 2차 근대의 상황에서 개인화된 개인들의 정신적 주체화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부정되지 않는 한, 두 논의의 선택적 친화성은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의 논의를 다양한 비서구적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이들의 개인화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비서구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 다른 한편으로 만일 비서구적 상황이 이들의 공통된 이해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학문적 재평가와 대응이 필요한지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 개인화 현상이 서구 이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군의 학자들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이 지역의 개인화는 백이 설명하는 서구 상황과는 달리 주체화된 개인들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가족 지향적 혹은 가족 종속적인 개인들의 가족적 책무와 위험에 대한 조절 노력의 반영이다(Chang and Song, 2010; 장경섭, 2011).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이루어진 여러 최근 사회조사를 보면 이들 동아시아인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법적) 혼인, (혼내) 출산, (성별) 가사 분업 등에 대해 보수적 가족 지향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거시적 정치경제 질서와 사회정책 체계의 가족 중심성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이 파슨스를 원용해 서구적 맥락에서 지적하는 제도화된 개인주의와는 대비되는 제도화된 가족주의(institutionalized familialism)가 동아시아적 상황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Chang, 2010).

그런데 서구의 2차 근대적 상황에 상응하는 변화가 20세기 중반 동아시아에도 전개되었는데, 이는 구조적 장기 불황, 국가적 금융·재정 위기, 개발 체제의 붕괴, 주요 산업의 세계화(국외 이탈) 등에 맞물린 가족주의적 책무와 위험의 과도화 혹은 가족화의 급진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급박한 환경에서 동아시아인들은 한편으로 여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장기적 차원의 개인의 삶을 계획하거나 목전의 생활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가족적 책임성을 적정 수준에서 사전 조절하거나 책임 이행의 실패 위험을 축소·예방하기 위해 혼인을 미루거나 조기에 이혼하고 혼인 후 자녀 출산을 포기, 연기, 최소화하는 등 광의의 개인화로 간주되는 다양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러한 반응들은 주체화된 개인들의 이념적 개인화(ideational individualization)와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역설적으로 동아시아인들의 여전히 보수적 가족 중심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출산율 하락이 반드시 여성지위의 향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 등에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페미니스트 진영이 전면적 비판에 나서기보다는 그 정책에 수반되는 출산·육아 지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와 서구의 개인화를 둘러싼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차이를 감안할 때, 진화심리학과 백의 개인화론의 이론적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특정한 역사·사회적 맥락, 특히 시대의 지배적 가족-개인 관계 및 젠더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동아시아적 개인화를 구성하는 가족주의 개체들에 대해 진화심리학의 여러 전제들과 설명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이 점이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진화심리학적 접근의 타당성이나 유용성을 사전 차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동아시아의 후발 개발자본주의적 맥락에서 흔히 갖가지 전통적 문화와 규범을 환기시키며 강조되는 개인의 가족에 대한 책임성은 결국 가족의 개인에 대한 책임성을 내포하며, 이는 개인-가족 관계의 근대적 진화 방식이 서구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함의한다. 이는 사회적 진화 혹은 근대화의 결여나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또 다른 근대화(성)의 유형인 것이다. 심지어 서구 내에서도 중부, 남부, 동부 유럽지역에서 각각의 특색을 갖고 관찰되는 가족주의적 특성이 정치경제 및 사회정책 체계와 연계되어 하나의 근대적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적 복잡다기성은 진화심리학적 논의가 비서구적 상황에 적용될 때, 그리고 심지어 서구 내부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다뤄야 할 때, 개인-젠더-가족-사회 관계에 대해 내용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진화(?)를 거쳐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 Ⅶ. 맺으며

이상에서 우리는 진화심리학의 젠더 관념이 이 전시기의 사회생물학보다는 동시대의 사회학자인 올리히 백과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진화론과 생물학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생각해본다면 진화심리학의 젠더 관념이 사회생물학과 많은 부분 다르다는 것은 생물학, 진화론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페미니스트들과 사회과학자들은 생물학은 남성 중심적 편견을 갖고 있고 또 가부장제나 가족을 자연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생물학과 진화론은 페미니즘의 장애물로 여겨지곤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진화심리학은 더 이상 가부장제나 가족을 자연화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은 진화심리학에 남성적 편견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진화심리학은 진화론적 페미니스트인 허디가 비판하듯이 서구 백인 남성의 편견을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Hrdy, 1999). 그러나 그 남성적 편견은 이제 가부장제나 가족을 정상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것은 아니다.<sup>16)</sup> 요컨대 진화심리학은 핵가족을 상대화하여 남녀 결합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 그 위치를 재조정하였으며, 여성은 주체화된 개체로서 다양한 남녀 관계를 선택하는 전략적 행위자가 되었고 남녀 관계는 조화뿐 아니라 갈등이 부각되고 이는 남녀의 진화된 성 심리와 전략의 차이를 통해 설명된다.

진화론적 사회과학의 이러한 발전의 결과 올리히 벡의 개인화론과 같은 관련 주제의 새로운 사회이론들과의 친화력이 강화되었다. 진화심리학은 분석의 초점을 가족 단위에서 남녀 개인으로 옮겼고, 또한 개인의 전략적 선택과 그 선택이 낳는 남녀 관계 갈등에 분석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데, 이런 점은 벡이 말하는 남녀의 가족적 존재에서 개인적 주체로의 변화, 개인 중심의 선택이 불가피해지는 상황, 선택이 야기하는 남녀 갈등에 대한 논의와 친화력을 보인다. 진화심리학과 벡의 개인화론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공통점은 진화론적 사회과학의 발전이 당대의 지배적 사회·정치적 분위기와 사회과학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16) 버스는 매력적인 여성에 대한 선호기준의 보편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예로서 문화권을 막론하고 허리 대 엉덩이 비율(Waist-Hip Ratio, 이하 WHR)이 0.7(허리 둘레가 엉덩이 둘레의 7/10)인 여성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아프리카로부터 브라질,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0.7 WHR의 여성 실루엣을 가장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버스, 2007: 78). 이에 대해 허디와 같은 진화론적 페미니스트들은 젊음이나 WHR에 대한 진화심리학의 연구들은 서구·백인·남성의 기준을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Hrdy, 1999).

그런데 최근 개인화 현상이 서구 이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비교사회적으로 검토하면 진화심리학과 백의 개인화론의 이론적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후기 근대라는 특정한 역사·사회적 맥락, 특히 동시대의 지배적인 가족-개인 관계 및 젠더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개인화는 서구 상황과는 달리 주체화된 개인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가족 지향적 혹은 가족 종속적인 개인들의 가족적 책무와 위협에 대한 조절 노력의 반영이다. 이는 진화심리학적 논의가 비서구적 상황에 적용될 때 개인-젠더-가족-사회 관계에 대해 내용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발전을 거쳐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이 논문의 모두에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1970년대는 사회생물학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격렬하게 반발한 반면 최근의 진화심리학의 유행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함께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진화심리학의 젠더 관념이 가족과 가부장제를 당연시하거나 자연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현재 진화심리학은 남녀 관계에서 가족은 하나의 선택지이며 보편적 형태라고 보지는 않는다. 남녀 사이에는 장기적·단기적 결합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며 어떤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는 남녀 각 개인의 맥락, 조건에 따른 것이라 본다. 심지어 버스는 남녀 사이에 조화와 일치보다는 모순과 불일치가 더 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자연적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남녀의 자연적 조화에 기초해서 가족의 영속성을 가정했던 월슨의 사회생물학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남녀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가 아닌 개체로 보면서 이들의 선택과 성별화된 차이에 따른 불일치와 갈등에 주목하는 진화심리학의 견해는 동시대 사회학자인 백의 견해에 접근하는 동시에 오늘날 페미니즘과도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이 글의 분석은 사회과학자와 페미니스트들에게 두 가지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우선 생물학 혹은 진화론의 젠더관념은 역사적 조건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점이다. 생물학, 진화론이 늘 가부장제를 자연화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역사적 시대마다 상이한 젠더 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물학, 진화론이 늘 가부장제의 동맹자라는 고정관념 역시 역사적으로 상대화되어야 한다. 생물학, 진화론의 젠더 관념은 시대마다 새롭게 조사되고 평가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며 생물학과 결합하는 고정불변의 젠더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생물학, 진화론의 젠더 관념은 각 분과의 해당 시대와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서구의 지배적 젠더 관념이 남성 생계 부양자/여성 전업주부 핵가족 이데올로기일 때 생물학, 진화론은 이를 자연화했다. 또한 20세기 후반 서구에서 기존의 핵가족이 약화되어 주류적 젠더 관념이 변화할 때 생물학, 진화론 역시 남녀 관계를 가족단위보다는 개체단위로 접근하는 관점을 발전시키고 남녀 관계의 갈등을 자연화해 온 것이다.

이 글의 두 번째 함의는 진화론과 가부장제의 동맹 혹은 진화론과 페미니즘의 적대는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란 점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생물학, 진화론에 대해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었던 이유는 사회생물학이 의도했건 아니건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했던 기성의 핵가족제도, 가부장제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결과이며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진화심리학이 더는 가부장제, 핵가족을 영속화, 자연화하지 않는다면 페미니스트들과 진화심리학이 첨예하게 대립할 이유는 사라진다. 이런 이유로 20세기 중반을 달구었던 사회생물학, 진화론과 페미니스트들의 갈등과 대립은 이제 그 역사적 시효가 만료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남호연, 2008, 『호주제의 부계 혈통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생물학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학위논문.
- 마이어(E. Mayr), 2005, 『생물학의 고유성은 어디에 있는가』, 박정희 옮김, 철학과현실사.
- 박상현·이태훈, 2011, 『사회학 비판Ⅰ, 『사회과학 비판』, 윤소영 외 지음, 공감.
- 버스(David Buss), 2005, 『마음의 기원』, 김교현 외 역, 나노미디어.
- 버스(David Buss), 2007, 『욕망의 진화』, 진중환 역, 사이언스북스.
- 벡(U. Beck), 1997, 『위험사회』, 홍성태 역, 새물결.
- 벡(U. Beck), 2010, 『위험에 처한 세계—비판이론의 새로운 과제』, 한상진·심영희 편저,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새물결.
- 벡·벡-게른스하임(U. Beck and E. Beck-Gernsheim), 1999, 『사랑은 지독한 혼란』,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역, 새물결.
- 벡-게른스하임(E. Beck-Gernsheim), 2010, 『가족 이후의 가족, 오늘날의 가족 생활』, 한상진·심영희 편저,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새물결.
- 보울러(Peter Bowler), 1999, 『찰스 다윈』, 한국동물학회 옮김, 전파과학사.
- 브라운(H. I. Brown), 1988, 『새로운 과학철학』, 신중섭 역, 서광사.
- 싱어(Peter Singer), 2007, 『다윈의 대답 1: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은 있는가?』, 최정규역, 이음.
- 알렉산더(J. Alexander), 1993, 『현대 사회이론의 흐름』, 이윤희 역, 민영사.
- 오현미, 2012, 『진화론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과 수용』,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학위논문.
- 월러스틴(I. Wallerstein) 외, 1996, 『사회과학의 개방』, 이수훈 옮김, 당대.
- 월러스틴(I. Wallerstein), 1994,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성백용 역, 창작과비평사.
- 윌슨(E. O. Wilson), 1992, 『사회생물학 II』, 이병훈·박시룡 옮김, 민음사.
- 윌슨(E. O. Wilson), 2000, 『인간 본성에 대하여』, 이한음 옮김, 사이언스북스.
- 윌슨(E. O. Wilson), 2013, 『지구의 정복자』, 이한음 역, 사이언스북스.
- 자레스키(Eli Zaretsky), 1986,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김정희 역, 한마당.
- 장경섭, 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3): 1-24.

- 장대익, 2004, 「진화심리학이란 무엇인가?」, 『포항공대 신문』 2004년 3월 25일 205호.
- 최재천, 2003,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궁리.
- 최종렬, 2005, 「고전 유럽 사회학의 지적 모체: 19세기 유럽 지성계의 지형」, 『사회와 이론』, 제6집: 35-81.
- 투르비언(G. Therborn), 1989, 『사회학과 사적유물론』, 윤수중 역, 푸른산.
- 피셔(Helen Fisher), 2005, 『제1의 성』, 정명진 역, 생각의 나무.
- 핑커(Steven Pinker), 2004, 『빈 서판: 인간은 본성을 타고나는가』, 김한영 역, 사이언스북스.
- 허디(Sara Blaffer Hrdy), 1994, 『여성은 진화하지 않았다』, 유병선 역, 서운관.
- 홍성욱, 2012, 「융합의 현재에서 미래를 진단한다」, 홍성욱 엮음, 『융합이란 무엇인가』, 사이언스북스.
- Henrich, Joseph and Robert Boyd et al., 2004, *Foundations of Human Sociality: Economic Experiments and Ethnographic Evidence from Fifteen Small-Scale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Barkow, J. H., 2006, *Missing the Revolution: Darwinism for Social Scientists*,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an, Z., 2002, “Individually, Together”, in Ulrich Beck and Elisabeth Beck-Gernsheim,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Publications.
- Beck U., and E. Beck-Gernsheimm,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Publications.
- Beckstrom, J. H., 1993, *Darwinism Applied: Evolutionary Paths to Social Goals(Human Evolution, Behavior, and Intelligence)*, Praeger.
- Betzig, Laura, Monique Borgerhoff Mulder and Paul Turke (eds.), 1988, *Human Reproductive Behaviour: a Darwinian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wles, Samuel and Herbert Gintis 2004, “The Evolution of Strong Reciprocity: Cooperation in Heterogeneous Populations”, *Theoretical Population Biology* 65: 17-28.
- Bowles, Samuel and Herbert Gintis, 2002, “The Inheritance of Inequali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3): 3-30.
- Boyer, P., 1993, *Cognitive Aspects of Religious Symbo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e, K. R., 2002, *Biology at Work: Rethinking Sexual Equality*,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uss, David M. and David P. Schmitt, 2011, "Evolutionary Psychology and Feminism", *Sex Roles* 64: 768-787.
- Buss, David M., 1996, "Sexual Conflict: Evolutionary Insights into Feminism and the Battle of the Sexes", in D. M. Buss and N. Malamuth ed., *Sex, Power, Conflict: Evolutionary and Feminist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 Chang Kyung-Sup and Song Min-You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40-565.
- Chang Kyung-Sup, 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 Coontz, Stephanie, 2005, *Marriage, a history: from obedience to intimacy or how love conquered marriage*, New York: Viking.
- Cosmides, Leda and John Tooby, 1992,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Culture", In Barkow et al. (eds.), *The Adap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Daly, M. and M. Wilson, 1988, *Homicide: Foundations of Human Behavior*, Aldine Transaction.
- Ellis, Lee and Anthony Walsh, 2000, *Criminology: A Global Perspective*, Allyn & Bacon.
- Gintis, Herbert, 2000, *Game Theory Evolving: A Problem-centered Introduction to Modeling Strategic Behavi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waty, Patricia Adair, 1997, "Introduction: Darwinian Feminists and Feminist Evolutionists", P. A. Gowaty (ed.), *Feminism and Evolutionary Biology: Boundaries, Intersections and Frontiers*, Chapman & Hall.
- Heilbron, Johan, 2008, "Social Thought and Natural Science", In Theodore M. Poter and Dorothy Ross (ed.),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vol. 7: The Modern Soci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rdy, Sara Blaffer, 1999, *Mother Nature: Maternal Instincts and How They Shape the Human Species*, Ballantine Books [『어머니의 탄생: 모성, 여성, 그리고 가족의 기원과 진화』, 2010, 사이언스북스].



- Lash, Scott, 2002, “Individualization in a non-linear Mode”, in U. Beck and E. Beck-Gernsheim (eds.),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Publications.
- Lewis, J., 2001, *The End of Marriage: Individualism and Intimate Relationships*, Edward Elgar Publishing.
- Lopreato, J. and T. A. Crippen, 1999, *Crisis in sociology: The Need for Darwin*, Transaction Publishers.
- Marlowe, F., 2000, “Parental investment and the human mating system”, *Behavioural Processes* 51: 45-61.
- Master, Roger and Gruter, 1992, *The Sense of Justice: Biological Foundations of Law*, Sage.
- Masters, Roger, 1989, *The Nature of Politics*, Yale University Press.
- Nielsen, François, 1994, “Sociobiology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0: 267-303.
- Parsons, T., 1962, “Youth in the Context of American Society”, *Daedalus* Vol. 91(1).
- Poter, Theodore M., 2008, “Genres and Objects of Social Inquiry, from the Enlightenment to 1890”, In T. M. Poter and Dorothy Ros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Vol. 7: The Modern Soci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erson, P. J. and R. Boyd, 2004, *Not By Gene Alone: How Culture Transformed Human Evolu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유전자만이 아니다』, 2009, 이음].
- Ross, Dorothy, 2008, “Changing Contours of the Social Science Disciplines”, In Theodore M. Poter & Dorothy Ros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Vol. 7: The Modern Soci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tkirch, Anna and Kristiina Janhunen, 2009, “Maternal Guilt”, *Evolutionary Psychology* 8(1): 90-106.
- Rubin, Paul. H., 2002, *Darwinian Politics: The Evolutionary Origin of Freedom*, Rutgers University Press.
- Samuelson, Larry, 1998, *Evolutionary Games and Equilibrium Selection*, MIT Press.
- Sanderson, Stephen K., 2001, *The Evolution of Human Socialit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Smuts, Babara B., 1992, “Male Aggression Against Women”, *Human Nature* vol. 3(1): 1-44.
- Smuts, Babara B., 1995, “The Evolutionary Origins of Patriarchy”, *Human Nature* vol. 6(1): 1-32.
- Symons, Donald, 1979, *The Evolution of Human Sex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Trivers, R., 1974, “Parent-offspring conflict”, *American Zoologist* 14: 249-264.
- Tuner, Jonathan and Alexandra Maryanski, 1992, *The Social Cage: Human Nature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Tuner, Jonathan and Alexandra Maryanski, 2008, *On The Origins of Human Society by Natural Selection*, Boulder, CO: Paradigm Press.
- Tuner, Jonathan and Jan E. Stets, 2005, *The Sociology of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ner, Jonathan, 2000, *On The Origins of Human Emotions: A Sociological Inquiry into The Evolution of Human Affect*, Stanford University Press,
- Tuner, Jonathan, 2003, *Human Institutions: A Theory of Societal Evolution*, Boulder, CO: Rowan and Littlefield.
- van den Bergh, Pierre, 1979, *Human Family Systems: An Evolutionary View*, Elsevier(New York).
- Vandermessen, Griet, 2004, “Sexual Selection: A Tale of Male Bias and Feminist Denial”,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11(1): 9-26.
- Vandermessen, Griet, 2005, *Who's Afraid of Charles Darwin?: Debating Feminism and Evolutionary Theory*, Romai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Vans, C. S., 1984, *Pleasure and Dangers: Exploring Female Sexuality*, Routledge & Kegan Paul Books.

## [Abstract]

### **Evolutionary Psychology and Individualism: A Comparative Social Contextual Reappraisal**

*Oh Hyeon-Mi.*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 Kyung-Sup.*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sociobiology emerged on the scene in the 1970s, it was met by strong resistance from feminism. However, since becoming a popular intellectual current in the 1990s, evolutionary psychology has been met by silence from feminist camps. Sociobiology “naturalizes” the nuclear family and finds a biological reason for the eternal family bondage in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sexuality. As a result, sociobiology was inevitably criticized for its naturalizing and advocating of the nuclear family and patriarchy. Evolutionary psychology, on the other hand, relativizes the nuclear family and re-adjusts its position as but one of multiple forms of union between male and female. Here, women, as subjectivized individuals, are strategic agents who select from a variety of male-female relations. In addition, evolutionary psychology points not only to harmony but also to conflicts in male-female relations, explaining the conflicts in terms of the different sexual psychologies and strategies that have evolved for the two respective genders. Evolutionary psychology does not view the nuclear family as universal and “natural”, and moves its focus to the explanation of evolutionary causes for the various clashes in male-female relations. On the one hand, this development in evolutionary social science has allayed the erstwhile critical stance of feminism, while on the other hand, it has strengthened affinities with new, thematically-related

social theories. For example, the perspective of evolutionary psychology bears many points in common with sociologist Ulrich Beck's contemporary discussions of individualization. Evolutionary psychology shifts analytical focus from the family unit to the individual man and woman, and gives extensive analytical weight to the strategic choices made by the individual and the gender conflicts those choices cause. This point shows affinity with Beck's discussions of the shift from family to individual subject, the conditions inevitably created by individual-centered choice, and inter-gender conflicts brought about by that choice. However, considering together the differential conditions of the East Asian region where the phenomenon of individualization is currently accelerating even faster than in the West, it is concluded that the theoretical commonality between evolutionary psychology and Beck's thesis of individualization is fundamentally based in the particular socio-historical context of the late modern West. Evolutionary psychology, if to be applicable to non-Western contexts, faces a necessity for much more complex and elaborate evolutions regarding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family, and society.

Key words: evolutionary psychology, sociobiology, feminism, individualization, gender, nuclear family, West, East Asia

오현미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강사 및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있다. 관심 분야는 페미니즘, 과학사회학, 사회심리학, 사회이론 등이다. 박사 논문은 「진화론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과 수용」(2012)이며, 공저로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2003)이 있다. E-mail: hyunmih99@gmail.com

장경섭은 브라운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비교근대성, 비교사회주의, 생애-가족-정치경제 관계, 사회이론 등이다. 최근 저서로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2009),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2010) 등이 있으며, 현재 *Wiley-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를 Bryan S. Turner 등과 함께 편집 중이다. E-mail: changks@snu.ac.kr

[2014. 04. 15. 투고; 2014. 05. 09. 수정; 2014. 05. 12. 채택]